



글로벌화만이 국내의 우수한 솔루션업체들이 사업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고 국제 표준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국내의 우수한 모바일 솔루션을 국제표준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야 할 뿐만 아니라 앞선 해외 솔루션을 도입, 다양한 개발환경과 언어를 경험 할 수 있도록 국내에 반영해 기술적 진전을 이뤄낼 수 있는 양방향성을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모바일 솔루션 기업들은 단순한 규격 개발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인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기술수준을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업계 스스로도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서비스의 국제 호환성 확보를 위해 OMA·OMTP와 같은 세계적인 표준화 단체 및 기구, 포럼, 컨소시엄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현재 모바일 솔루션 및 서비스의 국제 민간 표준을 제정하는 표준화 기구인 OMA의 전세계 400여 개 회원사 중에서 10%정도의 비율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표준선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굴지의 표준화단체인 국제표준화회의(3GPP2)와 국제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기구인 OMTP(Open Mobile Terminal Platform), OMA 등에 다수의 의장단을 배출하며, 국제 표준화기구 진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국내 모바일 산업이 차세대 이동통신 산업표준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표준화 활동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관,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모바일 솔루션 벤처기업들이 표준화 네트워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표준화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

TTA는 OMA와 협력을 통해 OMA 규격 인용을 가능케 해줬다. 그 동안 저작권 문제로 국내 표준채택이 어려웠던 부분을 해결하며, 국내 중소 모바일 솔루션 기업들의 표준화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준 좋은 사례이다.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제 표준화 회의참가 지원 등 정책적 배려와 더불어 정부기술개발 과제와의 조직적 연계, 표준화 DB 구축, 국제표준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구축, 통상마찰에 대비한 자국 솔루션의 보호, 국제표준화 과제발굴 등 정부의 지원활동 강화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도 기업도 보다 진전된 사고 방식으로 표준화에 다가서야 한다.

정부와 유관 협회, 이동통신사, 단말제조사, 모바일 솔루션 업체 모두가 상생협력하고 유기적 협조를 이끌어내야만 국내 모바일 산업기술을 국제 표준으로 정착시키고 국내 산업적 기반을 다지면서 해외시장 확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낼 수 있을 것이다. **TTA**